

길을 묻는 이에게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형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마음을 계발해야 진화할 수 있어요

15면에서 계속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그 새끼가 알까요? 그건 어미가 새끼고 새끼가 어미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음미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참 50% 미지의 세계와 또 보이는 50%의 유의 세계가 포함되어 회전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 사는 데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해어나 또는 해어 아니더라도 식물들이나 땅 속에서 사는 벌레들도 다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인간들 때까지 그렇게 겪어야 하며 또는 자기보다 좀더 나은 길로 진화하기 위해 생존경쟁을 하는 자기가 진화될 수 있는 마음의 계발이 돼야 이것이 불편하다 하면 좀더 편리하게 바뀌고 또 이것이 안됐다 하면 저절로 모습을 바꿔 태어날 수 있고 육신을 좀더 예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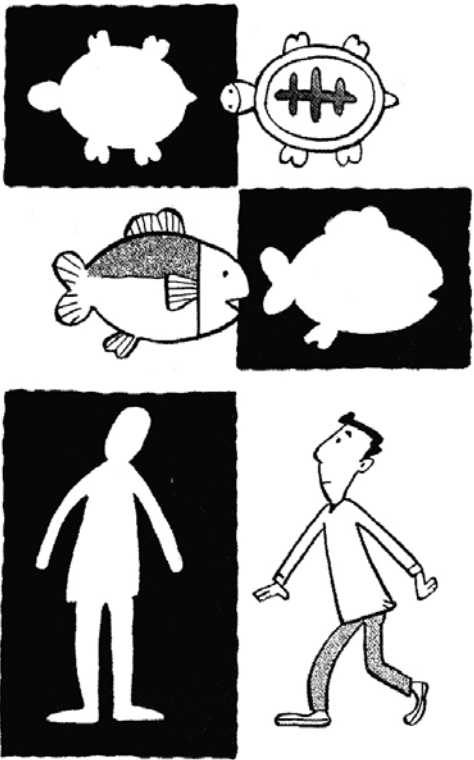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죽어도 죽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죽지 않느냐”
 “저기 낳아 놓은 알들이 나입니다”

그래서 참 맑은 물로 와서는 거기는 아주 맑은 데니까 바닥을 파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한 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거기에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대목에서 말입니다. 야, 인간은 손이라도 있어서 도구를 들고 판다 하지마는 연어는 손도 없고 도구도 없어요. 도구라는 것이 단지 공자밖에 없어요, 지느러미. 그러면 전체의 몸통이 하나가 그렇게 파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한발한발 떼어놓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낳으려 하고, 자기가 자기를 낳으려 간다는 것이 곧 이러 가는 거고, 죽으려 간다는 것이 곧 낳으려고 죽 생각하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생산이니 죽는니 하는 말이 안 붙습니다. 예전에 원효스님이 그랬듯이, 이거 두서없는 말 같지만 잘 들으십시오.

신라때 경주의 만선북리(萬善北里)에 한 과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뱀처럼 기어 다닌다 해서 이를을 사복(蛇卜)이라고 불렀답니다. 어느날 그 어머니가 죽자 사복은 원효스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經)을 읽고 다니던 암산 한마리가 오는 죽었으니 나와 함께 장사 지내러 가는 게 어떻겠소.” 이 말을 들은 원효스님은 이를 허락하고 사복의 집에 찾아가 시체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지 말지어다. 그 죽는 것도 고통이나라. 죽지도 말지어다. 다시 세상에 나는 것도 괴로우니라.” (莫生乎其死也 莫死乎其生也苦) 하고 말입니다. 이 두 마디를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렇듯이 그 고기도 그렇게 참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했기

때문에 자기가 콩지로 그걸 다 파서 슬러내려가지 않도록 파고, 또는 자갈을 다 주워모아서 옆으로 옆으로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연년이나 연남이는 바로 죽습니다. 몸을 버리죠. “왜 몸을 버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몸을 버리지 말고 자식들을 낳아 놓고 그 재물을 보고 싶지, 왜 몸을 버리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년이나 연남이가 말하는 것이 완을 아십니까?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많은 고기들한테

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연년이나 연남이는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놀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하면 “자기 지금 낳아 놓은 그 자체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나가 이 자리를 알고 이 자리를 또 옵니다. 이거예요. 이 말하기 전에 또 한마디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좀처럼해서는 없애지 않는 방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방생을 늘부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

잡혀먹히고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내 자리를 아는 것이 뎌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 강 속에는 땅 속에 묻혀서 공부하는 고기도 있고 돌 속에 묻혀서 공부하는 고기도 있고 밑바닥에 깔려서 공부하는 고기도 있지요. 그렇게 인간의 참 모습을 좀 보기 위해서 그 구멍도 없는 데서 불빛이 비치기를 바라면서 모두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그런 대답하

습니다. 물에만 넣으면 사는 줄 알지 마십시오. 물도 각자 뭍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물이면 물, 그냥 다 똑같은 줄 아시지마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동네도 영등포면 영등포가 있고 종로면 종로가 있듯이 동네 이름이 각각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지계분도 지계분 구역에 들어가면은 “야, 너 여기 어떤 줄 알고 들어와! 여기 구역은 내 구역이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봉방

합니까. 그렇듯이 자기 자리를 알고 고향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방생을 한다고 고기를 다 집어넣으면 개흙에서 사는 게 있고, 또는 모래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있으니 각자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자기 살던 대로 갈려나가 실리 가서 찾는 게 있고 이실리 가서 찾는 게 있고 백리를 가서 찾는 게 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생을 얼마나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 원리를 안다면 그런 고생 안시킬 겁니다. 저는 이런 말만 하면 일제시대 때 가 생각납니다.

일 본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징용으로 끌고가서 탄광으로 붙잡아 갔거든요. 그랬다가 8-15해방 때 딱 놔주니까는 제 집 찾아가는라고 전부 흩어져서 가다가

생이지, 어떻게 물 있는 데서 잘 사는 걸 잡아다가 넣고 또 잡아다가 고생을 시키고 그 중간에 죽는 것도 많을텐데 또 잡아다 놓고 또 건지고, 이게 방생입니까, 어디? 그건 방생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죽이는 것만도 못하죠. 사람은 사람대로 머리가 돌아야 하고 사람값을 해야 사람이 사람값을 못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런 갈래와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연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년이나 연남이와 같이 그런 얘기를 주고 받다가 참 기특한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금 설렘했습니다. “또 새끼가 될 게 아니라 착을 벗어나, 네가 된다는 그 새끼까지도 벗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집에 들어왔

잖아 낳습니다. 수염이 이만큼 나구요. 그랬는데 눈 하나 깜짝 안하는 겁니다. “저건 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고기가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상어 선생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건 잠어인데, 잠어가 변해서 이제는 아주 용이 돼갑니다.”이거예요. 저게 앞으로 천년이 더 있어야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회한도 이겨죠. 여의주를 얻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여의주를 얻어야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이런 공부할 하게 되겠죠.

그렇게 구경을 하고 보니까 이 집으로 들어가도 그 내막을 다 알겠고, 저 집으로 들어가도 그런 사정을 다 알겠는데는 집집마다 똑같이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해서 물론 이름해서 견성이라고 합니까는 견성한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한번씩 들으면 그것이 홀연히 넓어지면서 확 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2초가 더 회전이 빠른 데 그러면 회전이 왜 빠른가 했더니, 육지보다 이 속에는 죽 말하지만 지구 그 원자력 에너지하고 돌아가는 땅두께가 좀 얇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도 머리 회전이 빨리 못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진리가 빨리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물 안에서 공부하는 그런 해어들은 빨리 돌아가요. 그런 왜냐.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가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식물들도 식물대로 빨리 돌아가요. 저 물에 있는 거보다는 더더도 이 사람들보다는 더빠른 거예요. 그래서 공기 회전을 빨리해서 포착해 가지고 사람한테 또 주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걸 얻어먹어요.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야 이걸 주고 사먹겠다 하는 거나 똑 같아요. 이렇게 서로 공식하고 공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봉의 묘법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그 묘법이 그 물 안에서 돌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전체를 아는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놓으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죠. 사람이 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도 풀이 아니고 지렁이하고도 풀이 아니고, 작고 크고, 모습이나 둘 뿐이지 움죽거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쇄적으로 이렇게 받아 돌아가는 생존 경쟁 이 자체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책을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말을 들어서 귀동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알아서 적든 크든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알아서 경험해 보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먹어보고 맛을 알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리 남이 뭐라든 곳곳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물과 같이 눈하나 까딱 안하고 살 수 있죠.

여러분이 헛된 걸음걸이를 하지 않도록 또 제가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풀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은하고, 또는 향기를 고 조화를 이루고 또는 앉아서 호국불교도 하고... 전부 여러 마음 가운데에 있어요. 참 멋있었습니다. 여간 멋있는 게 아닙니다.

사탕 쓰고 주장자를 메고 참 한번 푸른 발을 한발 한발 떼어놓을 때에 피리 소리가, 구멍 막힌 피리 소리가 그렇게 은 누리에 다 들린다 했습니다. 음지양지 없는 땅에 백승 위 대봉은 자유롭게 날아오다.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먹어보고 맛을 알아야 흐르는 물처럼 살수 있어

2/3가 죽었습니다. 그 짝이야, 딱 아주.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방생은 이름만 방생이지 진짜 방생이 아닙니다. 방생이라는 것은 첫째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고아가 돼서 정말 학교에도 못 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고독하게 이리저리 방랑한다 할 때 그때 참 보살펴주는 게 방생이요, 둘째 또 사람이라는 것이 먹지 못해 부항이 나고 이럴 때 보살펴주는 게 방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내 형제처럼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도 방생이요, 무의탁 노인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해서 봉양하는 것도 방생이요,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거둬주는 것도 방생이요, 취직을 못해서 살림을 꾸려나가지 못할 때 취직시켜 주는 것도 방생이요, 사람 방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있다고 내가 이름날려고 남이 알게 갖다 내고 이름나게 하느라고 방송국에 갖다 내고 그러는 것이 방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고기가 물을 잃고 바닥에 나와서 필필할 때 그때 물에 집

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이 바깥을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년이나 연남이 생각은 이 몸이 죽는다면, 새끼를 낳고 죽는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럴 그 몸속에서 또 벗어나야 할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나 당신의 몸만 아니라 내 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 허다해, 집이. 이 물 안에 그냥 그냥 쉴 수도 없이 많아. 미생물에서부터 집이 이렇게 많은데 집이 없애?” 하니까 거기에서 연년이나 연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그냥 거기서 그 새끼들을 낳아 놓고 그만 자기는 자기 집을 버리구선 그 새끼들도 다 이다음에 웃을 벗고 아주 착을 두지 말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구선 떠났습니다.

그 러니 몇 식구가 됐죠. 식구가 한 네댓에서 또 한군데 구경을 하고 가지는 겁니다. 어딜 가느냐고 하니 그냥 따라오래

고아 장애인 등 어려운이 돌보는게 방생 모습다를 뿐 생명의 묘법은 하나로 돌아

어 넣어주는 게 방생이죠.

방생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하면, 그전에는 비가 올 때 많은 미꾸라지와 남생이, 쥐 자라, 새우 또는 붕어, 지렁이 이런 것들이 그냥 산중에도 비가 오면 죽 버렸어요. 그러면 스님네들이 어떤 한 줄 아십니까? 광릉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 흙바닥에서 필필 뛰는 거를 담았어요. 미꾸라지 집가 힘드는데 어떤 때는 손으로도 잡지만 손으로 잡으면 비늘이 없어져 죽을까봐 체로다가 담아가고서는 손고손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다 갖다 넣은 게 그게 아마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진짜 방생이지, 지금의 그게 방생입니까? 생각들을 해보세요. 예? 잘 노는 고기를 산 채로 잡아다가 팔면 그걸 사서 물에 넣고, 물에 넣으면 넣는 그 즉시 또 그물을 쳐서 잡아다 놔요. 그런 방생이 아니라 지극고를 당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방생이 얼마나 할 때가 없어서 그런 방생으로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지, 고기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짜 방생이 되겠습니까? 왜 잘 사는 고기를 잡아다가 잡으면서 죽고 바깥 물이 안맞아서 기다리다가 죽고 거둬먹고 고생을 하게 만들습니까? 물이 없는 데서 사는 고기를 물 있는데 갖다 넣는 게 방

고. 가다가 보니까 큰 집이 하나 또 있었 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가오리가 사는데 그렇게 큰 고기는 전 육안으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엔 들어가니가 말입니다. 아주 장치가 잘됐어요. 구멍들이 들어왔다 필물이 들어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벌렁벌렁만 하면은 그냥그냥 다 나가는 겁니다. 살기에 그렇게 구조가 잘 돼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공부하는 게 있고, 공부는 안하고 그냥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었습니까. 그런 생명들은 위에서 광선력을 받고서 물 위로 사는 게 반이 있고, 물 밑으로 사는 게 반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구경을 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전체가 연쇄적으로 다 붙어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방쟁어를 만났습니다. 왜 방쟁어 얘기를 하느냐하면, 그 큰 집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보니까 지느러미가 이렇게 굵은 게 말입니다. 지느러미가 포르르 말려 가지고 전부 비늘이 돼버렸어요. 비늘이 되고 번쩍번쩍 은빛

이사이문의 새책

대형 스님의 신행 문답서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일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와 '대형 스님'이 나누는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형 스님의 大用心이 빛나는 깨달음의 회답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7년에 걸쳐 있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절박한 경제난 타격을 한 방편으로 대형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거하고 재량유저를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이사이문의 의지를 실린 것입니다.

이사이문은 '좋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바'라는 정신으로 시대의 의미 및 책들을 안보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